


|   |       |  |    |  |
|---|-------|--|----|--|
|  | 한국사   | <b>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b><br>30차시 : 근대 사상의 유입과 사회운동<br>우리말, 우리역사 | 학번 |  |
|   | 임종일 T |  | 이름 |  |

## #우리말

-1921, 이윤재, 최현배 등 일제의 문화 정책에 맞서

(①)를 만들어 한글을 연구

-(①)는 (②)을 제정하고,  
잡지 (③)을 간행.

-1931년, (①)는 (④)로 이름을 바꾸었고,  
이후 (⑤)과 (⑥)를 제정  
& (⑦)을 편찬하려했으나,  
(⑧)으로 회원들을 체포, 투옥하면서 좌절.

## #우리역사

일제의 (⑨)에 맞선 역사연구 활발  
(⑨)이란? 한국사를 왜곡하려 한 일본의 시도.  
타율성론 :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발전하지 않고,  
중국 등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다는 논리  
정체성론 : 한국역사가 고대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중세 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리  
당파성론 : 조선의 역사는 당파의 다툼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우리의 낮은 수준 문화와 민족성 때문이라는 논리

아시아 대륙의 중심에 가까이 부착된 이 반도는 정치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반드시 대륙의 여파를 받음과 동시에, 또 주변 위치 때문에 항상 그 본류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여기서 한국사의 두드러진 특징인 부수성 (주가 되는 것에 붙어 따르는 성질)이 말미암은 바가 이해될 것이다.

-미시나 쇼에이, 조선사개설

이에 대한 연구

▶(⑩) ) 사학 : '민족정신' 강조

신채호 -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와 비아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전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 역사라 하면 조선 민족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인 것이다. 무엇을 '아'라 하고,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 무릇 주체적 위치에 선 것을 '아'라 하고, 그 밖에는 '비아'라 하는데, 이를테면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아'라 하고, 영국,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을 '비아'라 하지만, 그들은 각기 제 나라를 '아'라 하고, 조선은 '비아'라 하며, .....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와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 신채호, " 조선상고사 " -

박은식 -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지혈사』 - 민족 혼 강조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결코 없어질 수 없다고 했으니, 이는 나라가 형체라면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형체는 없어져 버렸지만, 정신은 살아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역사를 쓰는 까닭이다. 정신이 살아서 없어지지 않으면 형체도 부활할 때가 있을 것이다.

-박은식, 한국통사

이후 1930년대 정인보, 문일평 중심으로 전개된 **조선학 운동**으로도 이어짐.

|   |       |  |    |  |
|---|-------|--|----|--|
|  | 한국사   | <b>Ⅲ.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b><br>30차시 : 근대 사상의 유입과 사회운동<br>우리말, 우리역사 | 학번 |  |
|   | 임종일 T |  | 이름 |  |

▶(⑪) ) 사학 : 한국사를 세계사적 보편성 위에 체계화 하려함

백남운 - 『조선사회경제사』

조선 민족의 발전사는 그 과정이 아무리 아시아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구성의 내면적 발전 법칙 그 자체는 오로지 세계사적인 것이며, 삼국 시대의 노예제 사회, 통일 신라기 이래의 동양적 봉건 사회, 이식 자본주의 사회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조선 역사의 기록적 총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보편사적인 특징이며, 그것들은 제각기 특유의 법칙을 갖고 있다. 여기에서 조선사 연구의 법칙성이 가능하게 되며, 그리고 세계사적 방법론 아래서만 과거의 민족 생활 발전사를 내면적으로 이해함과 동시에, 현실의 위압적 특수성에 대해 절망을 모르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백남운, “ 조선 사회 경제사 ” -

▶(⑫) ) 사학 : 진단학회 조직, 한국사를 실증적으로 연구

이병도, 손진태 - 객관적인 '고증'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함

개개가 전체에 관련하는 것은 그 개개를 조금도 변개함이 없이 전체에 관련할 수가 있다. 일개의 사건이 그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으면서 넓게 그 시대 전체에 관련하고, 또 국민 · 민족의 전반에 관련하여 이해되고, 다시 인간 전체의 관련에 있어서 고찰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 또 실증주의적인 사건의 개개의 정밀한 탐구라는 것도 시간, 장소, 인물에 대한 개별적인 탐색으로서 역사의 사실이 명백하게 되는 것은 그대로 전체 관련에서 보는 데 조금도 지장될 바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 생활 전체의 이해에 있어서는 개개의 인간의 행위가 정밀하게 정확하게 알려질 것이 필요하다.

- 이상백, “ 조선 문화사 연구 논고 ” -